

선진미술관서 배운다

美 스미소니언 인스티튜션

지식의 寶庫, 미국의 힘 여기서 나온다

스미소니언 인스티튜션(Smithsonian Institution)을 돌아보지 않고는 미국을 말하지 말라는 말이 있다. 미국의 역사와 과학, 예술을 집약해 놓은 보고(寶庫)이기 때문이다.

스미소니언 인스티튜션(이하 스미소니언)은 미국의 수도이자 세계 정치 1번지로 불리는 워싱턴 D.C에 위치해 있다. 스미소니언은 국회의사당, 백악관, 세계은행 등 세계의 중추적 기관들을 제치고, 전 세계 사람들이 가고 싶은 곳이기도 하다. 이 때문인지 매년 전 세계에서 약 1천여만 명의 관람객들이 찾는다.

스미소니언은 영국의 과학자인 제임스 스미슨(James Smithson·1765-1829)의 유산 50만불을 모태로 1846년 설립됐다. 당시 이 엄청난 기금을 기증받은 미국 의회에서는 약 10여년동안 조직 형태와 활동내용 등을 논의, 스미소니언 인스티튜션을 발족했다.

16개의 미술·박물관을 운영할 뿐 아니라 미국의 과학과 역사, 예술문화를 총망라 하는 전시활동과 전문연구를 수행한다는 점에서 미국 최대의 문화복합기관이다.

스미소니언 인스티튜션은 미국정부의 관리를 받지만 실질적으로는 독립기관처럼 운영된다. 이 때문에 스미소니언의 유지업들은 다른 미국 미술관들이 10~20달러의 입장료를 받는 것과 달리 모든 관람객들에게 무료로 개방되고 있다.

이곳의 최고 기구는 이사회이며 이사회 멤버는 미국의 부통령과 대법원장, 연방 상하 양원에서 각각 3명씩 선출되고 상하의원들이 선출한 9명의 일반 시민들로 구성된다.

현재 스미소니언을 이끌고 있는 총재는 은행가 출신인 로렌스 M.스몰(Lawrence M.Small)로, 미술관 운영에 필요한 재원확보에 주력한다. 대신 미술관의 실질적인 업무는 이사와의 전문

셔널 말(National Mall)이라고 불리는 국회의사당 앞에 위치해 있다.

스미소니언 인스티튜션의 감점은 뛰니뛰니해도 약 1억 4천여점에 이르는 방대한 소장품이다. 우주 항공박물관에는 토머스 에디슨이 발명한 전구, 세상에 처음으로 선보인 알렉산더 그레함 벨의 전화기, 달 착륙에 성공했던 우주선 '아폴로 14호' 등 교육적인 가치가 높은 자료가 망

국 교육과정, 지역순회강연, 체험형 관람프로그램, 어린이 미술관 등이 대표적이다.

아시아 미술을 전문적으로 다루는 '새클러 갤러리'의 경우 학교와 연계된 어린이 교육프로그램을 모범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이 미술관의 '상상 아시아(Imagine Asia)'는 어린이들에게 아시아 미술을 소개하는 프로그램으로, 참가학생들은 도슨트(전시해설위원)와 에듀케이터의 안내로 아시아 미술작품을 둘러본 후 공작실에 모여 관람소감을 직접 미술작품으로 만드는 체험학습을 한다.

스미소니언 자연사 박물관에서 만난 이태희 국립민속박물관 학예사는 "미국 미술관의 공통점은 대중들을 대상으로 한 교육부서가 조직의 핵심분야로 운영되고 있는 것"이라며 "시민들은 계층별·연령별 프로그램을 통해 다양한 미적 체험을 즐기고 있다"고 말했다.

스미소니언 국제협력부 디렉터인 프랜시스 C.버코워츠 여사는 "미국인들 뿐 만 아니라 외국인들에게도 문화를 개방하는 '열린 공간'으로 거듭나는 것이 우리의 궁극적인 목표"라면서 "특별위원회, 기업위원회, 여성위원회, 자원봉사모임 등을 매개로 구축된 인적 자원이 스미소니언을 이끌어가는 힘"이라고 강조했다.

(워싱턴 D.C=박진현기자 jhpark@kwangju.co.kr)



스미소니언 산하 '새클러 갤러리'의 '상상 아시아' 프로그램에 참가한 어린이가 전시작품을 관람한 후 느낀 점을 미술작품으로 표현하고 있다. (사진제공=이태희·국립민속박물관 학예사)

산하 16개 미술·박물관...인류 역사·예술 망라 소장품 1억여점 매년 전 세계에서 1천만명 찾아 계층·연령별 다양한 교육·체험 프로그램 운영

크레이터들이 협입체제로 운영한다. 스미소니언의 1년 운영비는 1억 5천만 달러에 이르며 직원수는 6천여명에 달한다.

스미소니언은 워싱턴 D.C의 국회의사당을 중심으로 양 옆으로 늘어서 있다. 본부건물인 스미소니언 캐슬을 비롯해 '자연사 박물관', '미국 역사 박물관', '우주 항공박물관', '미술박물관', '국립 아프리카 박물관' 등 9개의 뮤지엄은 '내

려와 있다. 자연사 박물관에는 여러 종류의 공룡 화석과 고대 동식물의 희귀한 화석들을 비롯, 인류 역사의 발전과정을 한눈에 볼 수 있는 모형들이 전시돼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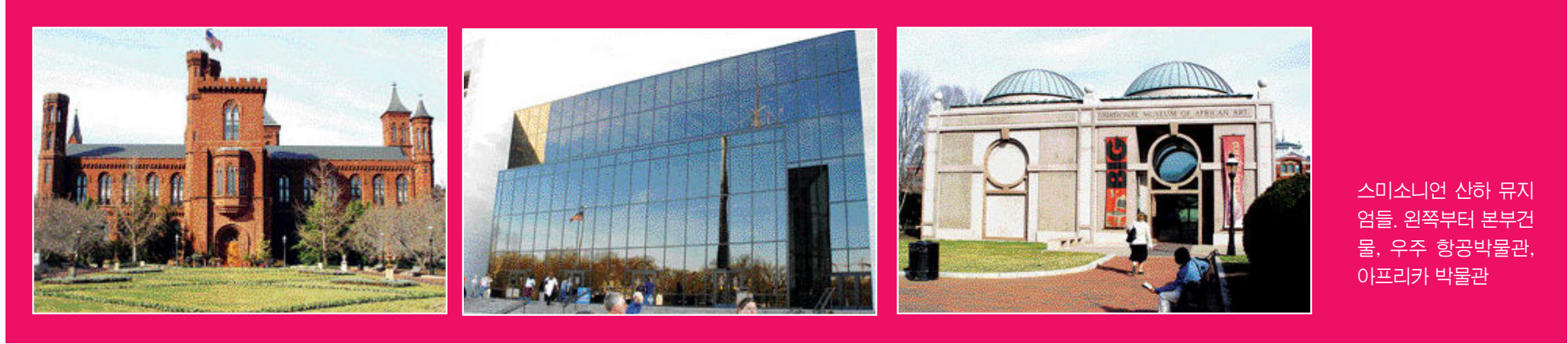
방대한 소장품과 함께 스미소니언 산하 16개 뮤지엄들은 다양한 교육·체험 프로그램을 통해 미국인들의 문화마인드를 높이는 데 앞장서고 있다. 교사들을 대상으로 한 정보자료제공, 박물관

스미소니언 '한국실' 5월 개관

30평 규모...한글·한복 등 전시

미국 스미소니언 자연사박물관 한국실이 오는 5월 개관된다.

또 한국실 개관에 맞춰 이틀간 1천만명의 관람객이 다녀가는 스미소니언 박물관 한국실은 오는 5월 23일 미국 정부와 의회 관계자, 외교사절, 한국 관련 인사 등을 초청해 개관식을 갖고 최소 10년간의 상설 전시에 들어간다.



스미소니언 산하 뮤지엄, 왼쪽부터 본부건물, 우주 항공박물관, 아프리카 박물관

Large advertisement for 'Hankil Computer & IT' featuring educational courses, exam preparation, and IT services. Includes contact info: 062-522-9119, www.hankilcom.co.kr

A grid of 11 real estate advertisements for various agencies, including 'Homecon' and 'Daewoo'. Each ad lists services, contact numbers, and agent names.